

세미 프로젝트 (자판기)

소감문

팀 : 4팀

이름 : 강별희

주제 : 대학생용 증명서 발급기

깨달은 것들

1. 바로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내가 쓰려는 자료구조나 방법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부터 생각해보기.

- 초반에는 일단 해볼 수 있는대로 구현할 기능의 코드를 작성해보자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어디까지 진행됐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다시 파일별로 클래스를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했었습니다.

- ex)다른 클래스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겠다고 new 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변수의 초기값이 퍼올려 지는데 이걸 깨닫는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. 값이 수정된 변수를 읽어오려면 직렬화를(지금 우리 수준에선) 고려했어야 했습니다.

- ex)현금 수입을 직렬화하려고 할 때 어떤 자료구조에 담을지가 고민이었습니다. 처음엔 벡터같은 자료구조에 담아볼까 했는데 배열을 사용해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2차원 배열도 직렬화가 가능할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했는데 다행이 가능했습니다.

- 즉, 기획안을 자세하게 짤 수록 코드를 구현하는 단계는 더 원활하겠구나 느꼈습니다.

2. 자바가 제공하는(API 문서에 있는) 클래스들과 그 안에 있는 메소드들 숙지하자

- 1번과 같은 얘기입니다. 메소드로 이미 제공하는 기능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직접 구현하기 전에 API문서를 찾아봐서 시간 낭비를 줄여야겠습니다. ex)HashMap을

사용하는데 키 값을 읽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에 API부터 읽어보는 게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3. 공동으로 작업을 하므로 코드의 버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.

- 분명 각자 작업한 최신 버전을 공유 폴더에 업로드하고 그걸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 왜인지 바뀌지 않아있는 코드들이 있었습니다. 어디까지가 수정본이고 진행하던 작업 파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덮어쓰기를 할 때 주의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.

4. 예상하지 못했던 실수

- 지금 창에 띄워놓고 수정하고 있는 파일과,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파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작업 경로를 꼭 확인해야겠습니다.

5. 예외는 만드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예외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방지해두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

6.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기

- 방금 전에 수정한 코드도 왜 수정했는지 어떤 시도를 하다가 발생한 오류인지 기억하기 어려운데 회의록에 적혀있는 것들은 읽으면 왜 그렇게 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이 납니다. 중간중간 기록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, 같은 실수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.

7. 논리적인 허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.

- 코드레벨에서 오류가 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나 혹은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. ex) 용지 재고의 한계가 없어 1억 장도 채울 수 있다.

8. 기타 마무리

주제 선정할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줄은 몰랐습니다. 여기서 오류를 수정하면 저기서 또 다른 오류가 생기는 무한루프 같았습니다. 다 했다 싶었는데 추가하고 싶은 기능에는 끝이 없어서 어느정도 타협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. 아직 개념 숙지가 미숙하다고 느꼈습니다. 접근제어지시자의 정확한 사용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 헛갈리다보니 당연하게도 진행이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. 기본이 되는 개념들부터 완벽하게 익혀야 겠습니다.

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막혔던 부분들은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숙지하게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. 또 팀프로젝트라서 좋았던 점은 내가 막힌부분을 팀원에게 보여주면 금방 해결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.

첫 프로젝트라서 더 해맸던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시작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팀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!